

No.20160316-001

제목: 안과 청춘

저자: 사카키 쓰카사

페이지수: 325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03월 17일



<내용소개>

달콤한 화과자가 어우러진 맛있는 청춘 소설

이 작품은 2014년 한국에 번역 출판된 소설 <화과자의 안>의 후속 작품이다. 주인공 교코가 대학 진학 대신 명문 화과자점 '미쓰야'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려냈었다. 넘치는 식성과 군살 때문에 고민하는 주인공이 일본의 전통 화과자에 대해 배워가는 과정을 따뜻하고 유쾌하게 담아내, 젊은 세대가 처한 어두운 현실을 무겁지 않게 풀어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두 편의 제목에 등장하는 '안'은 화과자에 없어서는 안 될 '앙금'을 뜻한다. 미쓰야의 동료가 교코에게 붙여준 별명이다.

전편에 이어 미쓰야의 식구들도 안(교코)과 함께 돌아왔다. 아름다운 외모에 믿음직스러운 쓰바키 점장, 여성스러운 꽃미남 선배 다치바나, 과거에 불량소녀였던 유부녀 대학생 사쿠라이 등 여전히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다. 이전 소설이 계절에 따라 한 편씩 구성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소설은 안의 내면 변화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첫 편 <하늘의 휘파람새>에서 안은 다른 백화점 매장에 갔다가 한 손님이 도시락 성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매하는 직원을 '설탕 공예로 만든 새'라고 나무라는 장면을 목격한다. 화과자와 연관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쓰야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 단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안은 쓰바키 점장, 다치바나 선배에게 물어보고 홀로 생각하다가 깨닫는다.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는 의미였던 것이다. 자신 역시 화과자점에서 손님들에게 설명하며 판매를 하지만, 결국 점장과 선배에게 들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설탕 새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언젠가 진짜 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결심하며 마무리된다. <여자의 명절>은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화과자점이 한가한 틈을 타 교토 여행을 다녀온 안의 에피소드가 펼쳐진다. 좀 더 넓은 세계와 만나고 돌아온 후, 자신의 한계를 체감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 그려진다. 시즌 별 행사에 맞춰 안이 겪게 되는 일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안, 좌절, 주위의 격려와 도움을 받으며 굴하지 않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려는 다짐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본문에서는 여전히 화과자에 대한 세밀하고 맛깔스러운 묘사가 돋보이는데, 그 안에 숨겨진 안의 이야기를 들으면 현재를 살아가는 한 명의 젊은이로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달콤한 과자를 먹고 싶을 때 추천하고 싶은 소설이다.

<목차소개>

하늘의 휘파람새 / 여자의 명절 / 남자의 명절 / 달콤한 짐 / 가을 길 걷기

<저자소개>

사카키 쓰카사

1969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2002년 『청공의 알』로 데뷔하였다. 최신 작품으로는 『고기소설집』, 『뭐가 곤란할까』 등이 있다.

No.20160316-002

제목: 나의 보석

저자: 슈카와 미나토

페이지수: 333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01월 12일



<내용소개>

누구나 갖고 있는 추억과 사랑에 대한 여섯 개의 이야기를 모은 단편소설집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 형태를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을 할 때가 있다.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가 눈에 보인다면, 기쁨과 쓸쓸함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거나, 소중한 시간을 물건처럼 모아 간직해두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이 책은 여섯 편의 '사랑' 소설 단편집이다. 무난한 듯 하지만 곳곳에 기발한 설정들이 자리잡고 있다. 「쓸쓸한 머플러」의 주인공 미나미는 타인의 외로움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후, 사람들의 목 근처에 뿌연 실처럼 보이던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뚜렷한 모양과 색을 가지며 머플러처럼 보이게 되었다. 그런 능력이 생기면 좋을 것 같지만, 미나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듯 하다. 미나미는 외로움 머플러를 통해,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의 이면을 깨닫고 씩씩해진다. 「포코탄 더 그레이트」는 포코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나오키에 대한 이야기다.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부모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자라 몸도 마음도 건강한 나오키의 청춘 시절 에피소드가 밝혀진다. 화자의 서술에서도 역시 그녀에 대한 애정이 드러난다. 그의 정체는 맨 마지막에 알 수 있다. 「동그라미 하우스의 추억」은 가장 무난한 글이지만 가장 여러 사람과 만날 수 있다. 그 곳에 엄마와 세 들어 살았던 모토키의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사연이 펼쳐진다. 「보존, 사랑해」는 한류 붐 속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 멤버 '보존'에 폭 빠진 남자의 이야기다. 주요 대상은 허구의 이름을 가져다 썼지만, 곳곳에 등장하는 한국 이야기에 웃음이 터질 것이다. 연예인을 일방적으로 순수하게 좋아해본 사람이라면 매우 공감할 만한 이야기이다. 「추억의 세레나데」에는 투신자살을 시도했던 어릴 적 친구 치아키에게 미안함과 자책감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때로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운 인연으로 이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 글인 「그녀의 보석」은 추억과 사랑에 더욱 초점을 맞췄다. 당시에는 소중했던 순간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한 구석으로 밀려나버린다. 하지만 추억은 많은 것이 변해버린 뒤에도 그 시절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만 남겨지는 증거이며, 어디에 살게 되든 바뀌지 않는다. 주인공은 이 사실을 깨닫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추억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작가는 호러소설로 유명한 슈카와 미나토다. 기존에 발표했던 글들과는 달리, 쇼와 시대의 향수가 묻어나는 소박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누구의 마음 속에나 있는 기본적인 감정과 추억에 대한 단상을 소설에 담아냈다. 어느 한가한 오후, 낯설지만 따뜻한 곳으로 이끌어줄 소설이다.

<목차소개>

쓸쓸한 머플러
포코탄 더 그레이트
동그라미 하우스의 추억
보존, 사랑해
추억의 세레나데
그녀의 보석

<저자소개>

슈카와 미나토

1963 년 오사카에서 태어남. 게이오기주쿠대학 문학부 졸업, 출판사 근무를 거쳐 2002 년 「올빼미 사내」로 올 요미모노 추리소설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2003 년 「하얀 방에서 달의 노래를」로 일본호러소설대상 단편상을 수상. 첫 저서 『도시전설 세피아』가 나오키상 후보에 오르고 2005 년에는 『꽃밥』으로 나오키상 수상. 그 외 작품으로는 『안녕의 하늘』, 『추억의 노래』, 『병든 나뭇잎 일기』, 『오늘은 서비스데이』, 『은하의 휘파람』, 『태양의 마을』, 『오르골』, 『어둠의 물밑』, 『무한한 뼈』, 『사쿠라 비밀기지』, 『오늘부터는 사랑하는 사람』등이 있다.

No.20160316-003

제목: 하류 노인과 행복 노인: 하류 사회에서 행복한 노인이 되는 조건

저자: 미우라 아츠시

페이지수: 219

장르: 사회

출간일: 2016년 03월 17일



<내용소개>

하류 사회에서 돈이 없어도 행복한 노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해보다

이 책의 저자는 『하류사회』라는 저서를 발표하였다. 일본이 고도성장과 버블 붕괴를 겪는 동안 중류층은 사라졌고 앞으로는 하류층이 주류를 이루는 '하류사회'가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학생, 비정규 고용 노동자, 싱글맘, 고령자를 중심으로 특히 경제 생활의 하류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점차 일본의 현실이 되었다. 연금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하류 노인들, 무허가 양로원에 들어가는 노인,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유흥업에 종사하는 대학생과 싱글맘에 관한 뉴스와 관련 서적이 화제가 되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 변화 추세와도 상통한다. 1997~1998년 발생한 IMF 위기는 극복하였지만, 내수 악화 및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여파로 제2의 IMF 사태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 분분하다.

이번에 펴낸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65세 이상 고령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논의하고 있다. 해당 연령층의 하류화 상황을 분석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한 노인으로 살기 위한 조건에 대해 고찰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여러 기술과 의학 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 여성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60대 이후의 고령자 시기에는 자산 격차가 고정되고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현재까지 논의되어 온 노후 대책은 그런 상황을 대비한 경제적인 측면의 것들이 매우 많으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노동의 대가로 수입을 얻기 어려워질 때에 대비해 미리 돈을 모으는 것이 곧 노후대비라고 말한다. 하지만 저자가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사회현상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노후의 행복과 비례하지는 않는다. 돈이 많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절반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 책은 다양한 설문 조사 결과와 사회 현상을 정리한 도표, 그래프를 통해 '행복 노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남녀 모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답했지만, 성별에 따라 우선 순위가 조금씩 다르므로 내용을 살펴볼 만하다. 또한 하류 노인은 건강과 손주, 상류 노인은 가족들과 함께 할 때 행복도가 오른다는 차이도 있다. 책 말미에는 행복의 조건에 대해 유명 투자가를 인터뷰한 내용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한국도 이미 하류사회에 접어들었다. 중산층은 매우 얇아졌고 그만큼 서민층은 두터워졌다. 앞으로는 초고령 사회가 다가올 것이다. 책을 통해 적절한 노후 대책을 고민하고 행복한 노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시작하며: 하류사회 안에서 「행복노인」을 찾다

제 1장: 상류노인과 하류노인

제 2장: 상류노인은 쓸쓸하고 하류노인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없다

제 3장: 무엇이 인생의 실패일까.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제 4장: 자산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 자산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

제 5장: 다세대 공생, 다기능, 참가형 사회가 행복노인을 늘린다

권말 인터뷰: 후지노 히데토(레오스 캐피탈 워스 대표 사장 및 최고투자책임자)

<저자소개>

미우라 아츠시

1982 년 히토츠바시대학 사회학부를 졸업하고 (주)파르코에 입사하였다. 1986 년 마케팅 정보지 「아크로스」편집장을 맡았고, 1990 년 미츠비시종합연구소에 입사했다. 1999 년에는 컬쳐스터디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소비사회, 가족, 청년, 계층, 도시 등의 연구에 입각하여 새로운 시대를 예측하고 사회 디자인을 제안하고 있다. 저서로는 『하류사회』, 『도쿄는 교외부터 사라져간다!』, 『일본인은 앞으로 무엇을 사는 걸까?』, 『앞으로의 일본을 위해 「쉐어」 이야기를 하자』, 『신도쿄풍경론』, 『패스트 풍토화 하는 일본』, 『제 4 의 소비』, 『「가족과 교외」의 사회학』, 『당신이 살 곳을 발견하는 방법』, 『「가족」과 「행복」의 전후사』, 『키치조지 스타일』, 『교외·원자력 발전소·가족』외 다수가 있다.

No.20160316-004

제목: 맛있는 메뉴

저자: 히라마쓰 요코

페이지수: 255

장르: 에세이

출간일: 2015년 11월 12일



<내용소개>

많은 이의 사랑을 받는 인기 가게의 맛의 비결을 메뉴를 통해 살펴보는 에세이

음식의 본질은 먹는 사람의 허기짐을 채워주고 맛과 식감을 통해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오직 생존을 위해 섭취하는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음식은 오락의 기능을 겸비하게 되었다. 가능하면 맛도 좋고 보기에도 예쁜 것을 고르려 한다. 게다가 건강에 좋기까지 하다면 금상첨화다. 특별한 날에는 다소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특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길 원한다. 이제 세상에 맛있는 음식은 많다. 이미 요리에서 국경은 허물어진 지 오래고, 여러 지역 색이 어우러진 음식들이 낯설게 느껴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깊이'는 다른 문제다. 음식의 맛이 깊이까지 보증하지는 않는다. 맛있는 요리는 과한 조미료로 치장된 일회성 메뉴일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을 거쳐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닌 메뉴일 수도 있다. 후자는 만드는 이의 철학과 신념이 녹아있어야만 가능하다. 그것은 맛있는 음식을 넘어선 '맛있는 음식'이다.

이 책은 에세이 작가인 저자가 인기 가게의 '맛'의 비결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가 주목한 것은 식당의 메뉴이다. 식당의 메뉴에 숨겨진 행간을 파악하고 가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조명한다. 문예지 「진저 에일」에 연재했던 내용을 정리하여 책으로 펴낸 것이다. 목차는 메뉴명으로 되어있다. 비프 스테이크와 찜 요리, 돈카츠 샌드위치, 메밀 국수, 핫케이크와 빵 케이크, 주스, 고기 만두 등 특정 장르 음식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가게를 섭렵하였다. 메뉴는 '가게'의 기원이자 정체성이다. 같은 이름의 메뉴를 취급하는 가게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더 차별화된 메뉴를 선보이기 위해 고심하는 이들이 많다. 인기 메뉴가 곧 가게의 얼굴이 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오사카에 있는 오텍 꼬치집 「타코 우메」, 도쿄 긴자의 유명 비프스테이크집 「긴노토우」와 같은 오래된 가게에서부터 아키바의 대포집, 길거리에 서서 먹는 소바 가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취재하였다. 대중 소바 연구가와의 대담 내용이 특히 눈에 띈다. 저렴한 가격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서서 먹는 소바'에 대한 개인 소감뿐 아니라 그 계통 별 분류, 그런 형태가 등장한 사회적인 배경까지도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저자는 '메뉴의 완성'을 통해 '가게의 본질'을 읽어내고자 노력했다. 이 한 권의 맛있는 에세이를

통해, 메뉴 목록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새로운 시점으로 음식과 메뉴를 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소개된 가게들로 당장에 달려가보고 싶어질 것이다.

<목차소개>

스튜와 찜 / 도톤보리의 메뉴 / 잠깐 대폿집으로 / 키친 트럭에서 런치를 사다 / 카츠샌드의 비밀 / 꿈의 모양 / 그러니까 주스 스탠드 / 저기에 서서 먹는 소바가 있으니까 / 「서서 먹는 소바에는 『넘버 원』이 없다」 -대중 소바 연구가, 사카자키 요시노리씨에게 묻다 / 취미 오차즈케 등

<저자소개>

히라마쓰 요코

에세이스트. 도쿄여자대학 문리학부 사회학과를 졸업하였다. 국내외 요리와 음식, 생활문화 등을 주제로 폭넓은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살 수 없는 맛』으로 제16회 Bunkamura 두마고 문학상 수상, 『야만스런 독서』로 제28회 고단샤 에세이상을 수상하였다. 최근 저서는 『오랜만의 노리벤』, 『요코씨의 책장』등이 있다.

No.20160316-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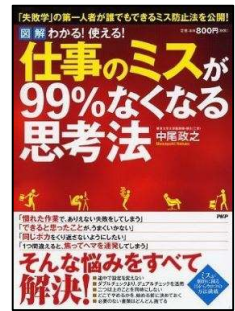
제목: 업무 실수가 99% 사라지는 사고방식

저자: 나카오 마사유키

페이지수: 91

장르: 비즈니스/자기계발

출간일: 2015년 01월 06일



<내용소개>

업무 중 실수를 '거의' 없앨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하는 책

실수 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 누구나 한 번씩은 저지르기에, 동료는 업무 중 작은 잘못을 하더라도 이해하며 함께 수습하려 한다. 하지만 실수가 잦은 사람을 무조건 받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사자뿐 아니라 조직 전체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이미 발생한 실수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대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는 있다. 한층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배울 점을 찾아 능력 계발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책은 실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99% 없앨 수 있다고 자부하는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다. 해야 할 일을 깜빡 잊어버리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을 마감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한번 더 확인해줄 것을 부탁했는데도 여전히 틀린 부분이 남아있어 질책 받는 사람, 익숙해진 일인데도 초보자나 할 법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고민인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한다.

저자는 제일 먼저 실수의 유형에 대해 해설하고, 총 36개의 실수를 줄이는 비결을 알려준다.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의 사고 방식/ 실수를 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바뀌어야 할 점/ 이미 저질러버린 실수를 더 크게 키우지 않는 방법/ 실수를 줄이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네 개의 장으로 분류하였다. 자신의 실수를 제대로 분석하여 대책을 세워두면, 하지 않아도 되는 실수를 저질러 괴로워할 일이 사라진다. 일부러 주의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악순환에서 빠져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블체크가 아닌 듀얼체크 (Dual Check)를 통해 실수를 미리 발견해내기, 설마 하는 생각이 들 때 위화감을 모른 척 넘기지 않기, 실패방지장치를 시스템에 만들어놓기 등 일상에서 직접 실천해볼 수 있는 내용이 많다. 모든 방법은 글 1페이지와 그림 1페이지, 총 2페이지의 짧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결한 핵심 설명과 일러스트를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실려있는 칼럼도 흥미롭다. 아침 출근 전 차에서 실패 없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전차에서 내릴 곳을 지나칠 정도로 깊게 잠들지 않는 방법 등 재미있는 내용 덕분에 지루해지지 않는다.

이 타이틀의 최종 목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하여 도전하여,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스스로의 실수를 무서워하지 않게끔 도와주고자 쓰여졌다. 맨 마지막 장에 요약되어 있는 방지책 리스트를 붙여놓고 몸에 익히면, 정말 실수의 99%가 사라져 있을지 모른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도대체 실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제 1장: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의 사고법

제 2장: 여기를 바꾸면 실수는 극적으로 줄어든다

제 3장: 이미 발생한 실수를 더 키우지 않는 방법

제 4장: 실수를 줄이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

실수를 99% 없애는 방지책 정리

<저자소개>

나카오 마사유키

도쿄대학 대학원 공학계 연구과 기계공학전공 교수. 1958 년 태생. 1983 년 도쿄대학 대학원 공학계 연구과 석사 과정 수료, 히타치 금속(주)에 입사, 자성재료 연구소에 근무하였다. 1989 년 HMT Technology Corp.(미국 캘리포니아 주)로 파견, 자기 디스크 생산설비 기동을 맡았다. 1992 년부터 도쿄대학 공학부 조교수, 2001 년부터 현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실패 100 선』, 『실패는 예측할 수 있다』, 『어째서인지 실수를 하지 않는 사고법』, 『「그만, 무심코」에서 「설마」의 실패학으로』 등이 있다.

No.20160316-006

제목: 아이 없는 인생

저자: 사카이 준코

페이지수: 205

장르: 에세이

출간일: 2016년 02월 27일



<내용소개>

‘아이가 없는 인생’에 대한 여자 시선에서의 고찰

사회라는 틀 안에서 사는 삶에는 여러 가지 과업이 주어진다. 나이가 되면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한다. 만 19세가 지나 어른이 되면 조금씩 준비하여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한다. 그게 끝이 아니다.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하고, 한 명을 낳으면 둘째는 언제 가질 것인지 묻는다. 아직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게 남아있는 집안이라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압박이 계속되기도 한다. 또, 돈을 모아 자기 집과 차를 사고, 직장에서는 차례 차례 진급하며 윗자리로 올라 가야 한다. 한편, 자식이 생기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육아가 된다. 잘 키워서 가르치고 결혼을 시키고, 그 뒤에는 손주를 돌봐줘야 할 수도 있다. 한 가지를 해내면 숙제가 또 하나가 생겨나고 만다.

이 책은 자녀가 없는 중년 미혼 여성의 ‘무자식 인생’에 대한 고찰을 담은 에세이다. 미혼자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기혼 부부가 이에 해당한다. 독신 남녀와 딩크족(DINK;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유지하며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이 점점 늘고 있는 현상은 한국과 일본 모두 마찬가지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동시에,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거나 출산을 하지 않는 부부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분하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원하는 방식으로 영위할 권리’와 ‘국가의 미래’ 중 어느 한 쪽만 옳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자의 경우,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자녀가 없는 자신이 죽으면 누가 뒤처리해 줄까 하는 걱정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사람은 혼자 태어날 수도 없지만 혼자 죽을 수도 없는 존재임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결혼 여부’가 아니라 ‘자녀 여부’라고 말한다. 부양해야 할 아이 없이 혼자 또는 부부가 오롯이 보내는 세월은 자유롭지만 때로는 적적함과 걱정을 안겨주기도 한다. 저자는 ‘자녀가 없는 삶’에 대해, 개인의 경험부터 사회현상과 정치적인 의미까지 폭넓게 다룬다. 이 글의 목적은 삶의 방식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그들은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지, 아이 없이 살고 싶다면 어떤 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12년 전, 저자는 「패배한 개가 짖는 소리(한국 번역본 제목: 결혼의 재발견)」라는 파격적인 제목

으로 일본의 미혼 30대 여성들을 이야기했다. 이 책은 논의 대상을 자녀가 없는 남녀로 확장한 셈이다. 많은 이들이 얹매어 있는 것들을 불편하지 않게 풀어냈으므로 한 번쯤 읽어볼 만하다. 자신의 현재 혹은 미래의 모습, 함께 살아갈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다.

<목차소개>

시작하며 / 연하장 / 아이를 싫어함 / 양육 우익 / 손자, 조카딸 / SNS / 한 사람의 몫 / 서로 양보하여 다가서기 / 포기할 때 등

<저자소개>

사카이 준코

1966년 도쿄에서 태어남. 고교 재학시절부터 잡지에 칼럼을 기고하였으며, 릿쿄대학 사회학부 졸업하였다. 광고대리점에 취직, 그 후 집필에 전념한다. 『결혼의 재발견(원제: 負け犬の遠吠え)』로 제4회 부인공론문예상과 제20회 고단샤 에세이상을 수상하였다.

No.20160316-007

제목: 최고의 리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저자: 후지사와 쿠미

페이지수: 216

장르: 비즈니스/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02월 05일



<내용소개>

지금을 살아가는 리더들을 위한 제안, “내향형 리더”

‘리더’의 모습을 떠올려보자.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하므로 목소리가 크고, 자신의 의견 주장도 다소 강하고, 즉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대담한 행동력을 지니고, 여러 모로 힘이 느껴지는 외향적이고 활발한 사람이 리더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 힘을 지도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부분이 구성원들과 부딪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리더로서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않고 묵묵히 있어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게다가 시대와 사회가 변해가면서 조직이 모습도 바뀌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의 모습 또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 책은 훌륭한 리더일수록 리더다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시대에 어울리는 리더십의 형태라고 말한다. 이는 저자가 15년간 1000명 이상의 경영자를 인터뷰하며 얻은 결론이다. 세계 일류 리더로 알려진 사람들의 다수는 내향적이고 배려심이 많으며 긍정적인 섬세함을 소유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새로운 리더의 자질을 유추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리더상의 변화는 역할이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이제는 경영자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기업을 이끌어나가는 데 방해가 된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행동이 아니라 ‘생각’이다. 후방으로 물러나 전체 비전을 생각하여 제시해야 한다. 부하에게 목적과 목표를 전한 후에는, 사회 공헌과 비즈니스의 밀접함을 이해시키며 능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 후 현장에서 해야 할 세세한 실무는 부하에게 맡겨 스스로 구축해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거시적인 스토리와 이미지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 또한 리더의 임무에 해당한다. 이 책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의 핵심, 그리고 그런 이상향에 가까워지기 위해 필요한 6개의 발상전환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직접 발로 뛰며 들은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제목에서 말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회사와 부서, 업종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 스타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저자는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점을 뽑아내어 새로운 리더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경영자를 주로 다루었지만, 중간 관리자와 아르바이트 고용 점주 등 리더십에 대해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유용할 것이다. 이제는 리더에 대해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조직을 진정으로 이끌어나가고 싶다면, 이 책의 메시지에 주목해보기 바란다.

<목차소개>

시작하며: 내향형 리더를 위한 도화선

제 1장: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에서 「사람이 움직인다」로

제 2장: 「해야 할 일」에서 「하고 싶은 것」으로

제 3장: 「생명을 전한다」에서 「이야기를 전한다」로

제 4장: 「모두 같은 편」에서 「모두 중립」로

제 5장: 「팀의 최전선」에서 「팀의 최후방」으로

제 6장: 「아름다운 것'도」에서 「아름다운 것'에」로

끝내며: 리더 - 관찰자가 아닌 한 사람의 리더로서

<저자소개>

후지사와 쿠미

싱크탱크 소피아뱅크 대표

대학 졸업 후, 국내외 투자운용 회사 근무를 거쳐 1996년에 일본 최초의 투자신탁평가회사를 설립하였다. 동사를 세계적 평가 회사 스탠다드&푸어스에 매각한 뒤, 2000년에 싱크탱크 소피아뱅크를 설립 계획에 참여하였으며 2013년에는 대표로 취임하였다. 그 외에 시즈오카 은행, 도요타 통상 등의 기업 사외 임원, 문부과학성 참여, 각종 부처 심의회 위원 등을 맡았다. 2007년, 다보스 회의(세계 경제 포럼 주재) 「영 글로벌 리더」, 다음 해에는 「글로벌 아젠다 카운슬」멤버로 선출되었으며 세계 수뇌·경영자들과 교류 기회를 얻고 있다.

No.20160316-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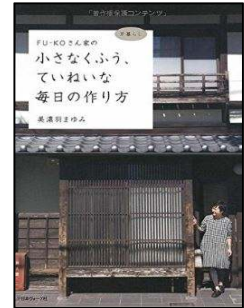
제목: FU-KO씨 집의 소중한 아이디어

저자: 미노와 마유미

페이지수: 128

장르: 라이프스타일

출간일: 2016년 01월 23일



<내용소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조금 더 즐겁게 만들어줄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

이 책의 저자는, 교토에 위치한 일본 전통 가옥에서 남편 및 두 아이와 살고 있다. 딸아이의 옷을 만들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만든 핸드메이드 아동복 브랜드는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런 그녀가 FU-KO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통해 조금씩 공개하던 내용을 정리하여, 생활 관련 책으로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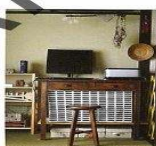
사진과 설명이 가득한 책 속에는 저자의 소박하고 단정한 일상의 모습이 담겨있다. 집안 모습과 소품뿐 아니라 간단한 레시피, 아틀리에 작업 동선, 시간 활용 방법, 직접 만든 옷 코디 법 등 그야말로 생활 전반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새로운 물건들을 사기 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끝까지 잘 쓸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중심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 있다. 예를 들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말에는 상대방이 자기 속도에 맞춰주지 않고 자신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타인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참고할 만한 조언들이 여럿 나온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미니멀 라이프의 연장선 상에서도 검토해볼 만하며, 반복하여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라이프 스타일 서적으로 추천한다.

<본문이미지>



表の間

必要最小限のスペースしかない我が家の玄関。そのすぐ隣に、その隣と呼ばれる我が家の玄関があります。昔はお客様が来るたびにここにお通しし、お相手をしていたのですが、今はその必要がなくなりました。我が家の玄関には、お通しする場所がなくなりました。お通しする場所がなくなりました。お通しする場所がなくなりました。



子どもたちが居ないときには、横に置いた机でパソコン仕事。ブログの更新やメールのお返事はこももて平座中に集中して行っています。



玄関の下駄箱はアジダネの雑貨店で購入して使われているもの。一暮らしの間にこの中におさる靴はたくさんあります。



食器はガラスの引き戸部分に、大きなものに重ねています。取り出しやすさを考えて、重ねる数は多くても5層程度にしています。

上の棚の中には保冷剤、飲み水、ワイングラス、お茶碗などを入れています。



はめ込み式の棚は、開閉しにくいので、上手に活用しています。上手に活用しています。上手に活用しています。



中段の引き出しの中は、カゴやケースで仕切ってカトラリーや箸置きお茶碗のセット、コースターなどを収納。





<목차소개>

제 1장: 생활

(상가란 / 계절의 즐거움 / 청소 등)

제 2장: 직접 만든 것

(FU-KO.basics / 아틀리에 /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등)

제 3장: 자신을 응시하다

(조금만 노력하다 / 블로그 / 카메라 등)

제 4장: 아이

(아이와 살다 / 아이를 가르치는 것 / 길가의 풀 등)

<저자소개>

미노와 마유미

장녀가 태어난 것을 계기로 아동복을 시작하였다. 「FU-KO.basics」로 인터넷 판매 및 이벤트에서 판매하고 있다. 컨셉트는 「추억에 남는 옷」. 아이들의 있는 그대로의 귀여움을 살리면서 심플한 여자아이 옷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지어진 지 90 년 정도 되는 상가에서 생활하는 나날을 담은 블로그도 팬이 많다. 저서로는 『만들어 주고 싶다, 여자 아이 옷』, 『매일 입고 싶다, 직접 만든 옷』 등이 있다.

No.20160316-009

제목: 울보 도깨비

저자: 나카노 히로타카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6년 02월 03일



<내용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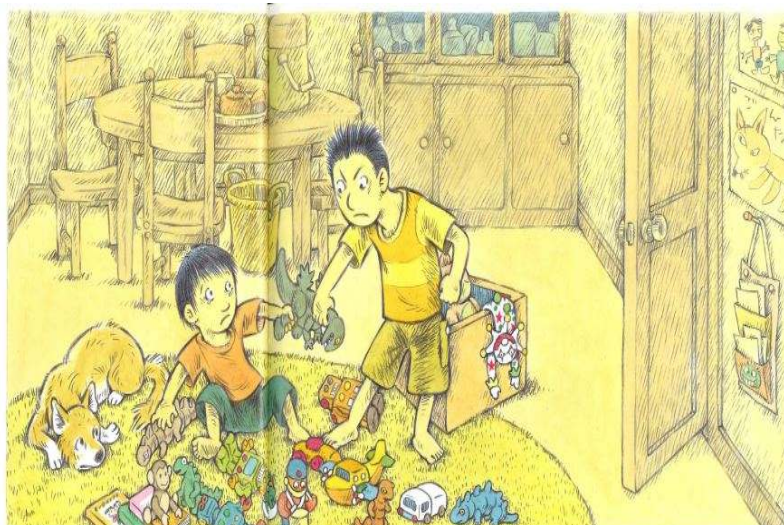
울보 꼬마가 무서운 도깨비에 넘어가지 않고 맞서 이겨내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쿤'은 눈물이 많습니다. 원하는 것을 금방 들어주지 않으면 울어버립니다. 어디에서 들려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쿤의 귓가에 '울어버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효과는 금세 나타납니다. 형이 장난감을 양보하고 산책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울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런데 산책 도중 쿤이 개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이 개를 찾으러 쫓아간 후, 혼자 남은 쿤의 눈 앞에 웬 물방울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점점 커져 도깨비가 됩니다. 올라고 부추기던 목소리의 정체가 바로 이 도깨비였습니다. 쿤은 너무 놀라고 겁이 났지만, 자신이 무섭지 않냐며 울어버리라고 말하는 도깨비의 말을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신을 위협하는 도깨비에게 지지 않으려 맞선 쿤은 도깨비와 부딪힌 순간, 이상한 물방울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귓가에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는 하고 싶은 것을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 하면서 울며 떼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그림책을 읽으면 혹시 자기 주위에 울보를 좋아하는 도깨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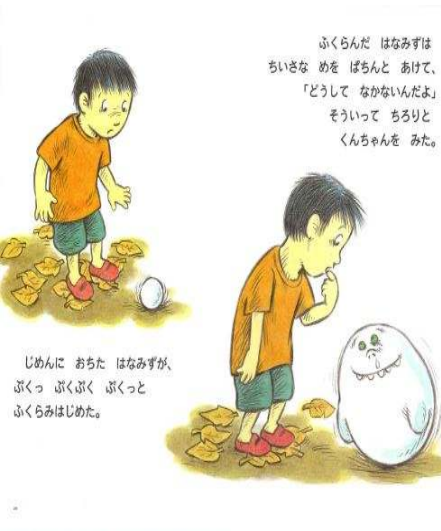
<본문이미지>

오にいちゃんはおもちゃを ひっぱった。
くんちゃんは ひっぱりかえした。
おにいちゃんは、こわい かおをした。
くんちゃんは、どきどきしてきた。
「おにいちゃんが おこった」
おにいちゃんは いきなり たちあがった。
「ぶたれる」
くんちゃんの めに なみだが あふれてきた。
すると だれかが、
「おにいちゃんが おこると、こわいぞ。
ないちゃえ ないちゃえ ないちゃえ……」
そんな へんなことを ううん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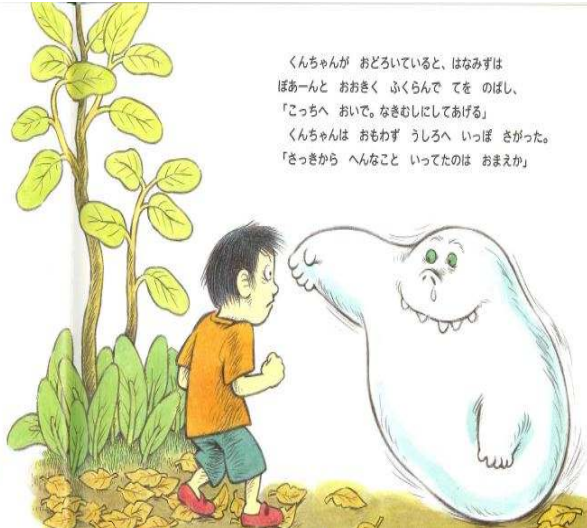


くんちゃんが そとへ だと、
「よかったな、さんぽが できて。ないからだぞ」
また だれかが へんなことを いった。
くんちゃんが きょろきょろしていると おにいちゃんが
「ぐずぐずしていると おいていくぞ」
「いやだ」くんちゃんは なきそうになった。
「なくんじゃない。なかないで おまえが さんぽさせる」
「うん、わかった」
おにいちゃんは「やくそくだぞ」
そういつて、くんちゃんに
さんぽの ひちを
わたした。



ふくらんだ はなみずは
ちいさな めを ばちんと あけて、
「どうして なかないんだよ」
そういつて ちろりと
くんちゃんを みた。

じめんに おちた はなみずが、
ぶくっ ぶくぶく ぶくつと
ふくらみはじめた。



くんちゃんが おどろいていると、はなみずは
ぼあーんと おおきく ふくらんで てを のぼし、
「こっちへ おいで。なきむしにしてあげる」
くんちゃんは おもわず うしろへ いっぱ さがった。
「さっきから へんなこと いったのは おまえか」



ぐわーんと おおきくなり、
「なんだと おれさまは
はなみずじゃない。
なきむしおぼけだぞ」
そういつて ぶるぶる ふるえるほど
おこりだした。
くんちゃんは、びっくりして
ひっくりかえってしまった。
すると なきむしおぼけは、
「どうだ、こわいだろ。
はやく ないてしまえ」
そういいながら、どんどん ふくらんだ。

<저자소개>

나카노 히로타카

1942년 아오모리현에서 태어남. 1964년 쿠와사와 디자인 연구소 리빙디자인과를 졸업하였다. 그 후,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디자인 회사 근무 등을 거쳐 현재는 그림책 창작에 힘쓰고 있다. 작품으로는 『코끼리 군의 산책』, 『코끼리 군의 빛 속 산책』, 『코끼리 군의 강풍 산책』, 『헤엄치다』 등이 있다. 현재 도쿄 거주 중.

No.20160316-010

제목: 더워!!

저자: 키소 히데오

페이지수: 26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4년 0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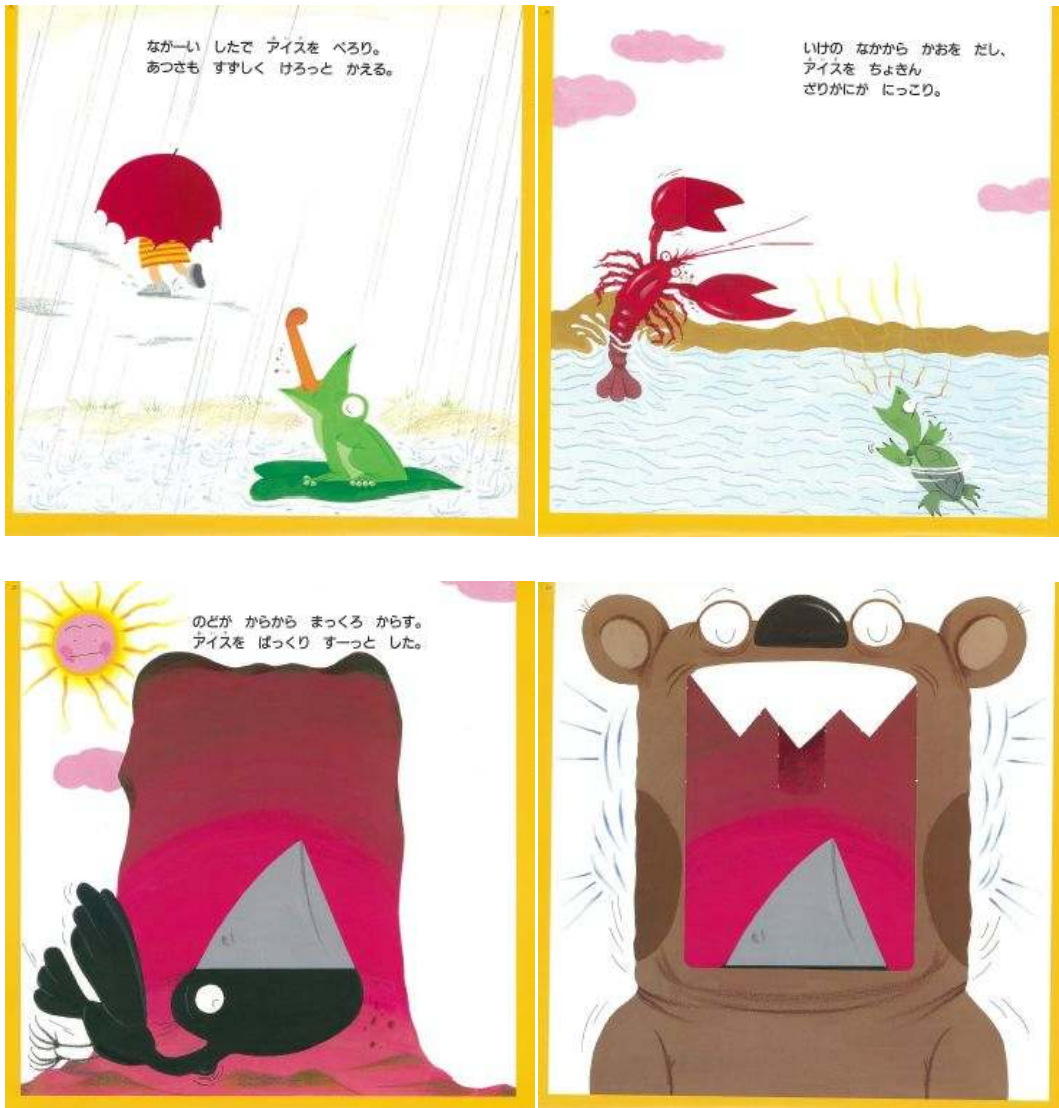
<내용소개>

어느 더운 여름날, 배불뚝이 너구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 배불뚝이 너구리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짹짹 내리쬐는 해를 피할 곳을 찾다가 아늑한 나무그늘을 발견한 너구리. 달콤한 낮잠에 빠져든 너구리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따끔한 느낌이 납니다. 모기가 와서 한 입 베어 물고는, 시원하다며 좋아합니다. 이번엔 누군가 오도독하고 베어 물었습니다. 개미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시원해졌다고 고마워합니다. 이어서 애벌레가 아이스크림을 갉아먹습니다. 커다란 투구벌레도 쑥 들어와 한 입 먹습니다. 개구리도 긴 혀로 호로록 먹고는 더위가 사라졌다고 좋아합니다. 물 속의 가재도 집게를 쥘 뻔어 한 입, 나무 위의 다람쥐도 한 입, 목 마른 까마귀도 한 입. 너구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놀란 너구리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나무 아래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후 배불뚝이 너구리는 더운 낮에는 시원한 곳을 찾아 쉬고, 서늘한 밤에만 밖에 나와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책은 페이지를 열면 그림이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채로운 의성어와 함께 한입씩 사라지는 아이스크림 너구리의 이야기입니다. 3~5살부터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키소 히데오

1930 년 오사카에서 태어남. 제 1 회 일본만화가협회 노력상, 제 3 회 겐부치 그림책 마을 비바 카라스 상을 수상하였다. 『꼬리 꼬리 꼬리 꼬리』는 제 46 회 조본장정콩쿨 입상.